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반들반들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반들반들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반들반들하다

완성된 이름

반들반들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반들반들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거죽이 윤이 날 정도로 아주 매끄럽다.

요약 연대표

표기	15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반들원들하다	○	-	-	-
반들반들하다	-	○	-	-
반들반들하다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거죽이 윤이 날 정도로 아주 매끄럽다.

문헌의 첫 기록

15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반들반들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거죽이 윤이 날 정도로 아주 매끄럽다.



반들반들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반들반들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반돌원돌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반들반들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반들반들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반돌원돌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반들반들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반들반들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반돌원돌 후다
15세기
- 반들반들 후다
19세기
- 반들반들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반돌원돌 후-, 반들반들 후-, 반들반들하-

반들반들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반들반들하다’의 옛말인 ‘반돌원돌 후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반돌원돌 후-’는 ‘반돌원돌’과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후-’가 결합한 것이다. ‘반돌원돌’은 이후에 ‘반들반들’로 변하여 19세기에 ‘반들반들 후-’가 나타난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후-’가 ‘-하-’로 바뀌면서 20세기에 ‘반들반들하-’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반들반들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5세기 반돌원돌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반돌원돌후-

출처 1481 두시언해 9:14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솔 선 門엔 드문 그르메 반돌원돌후도다.

현시대어 풀이

소나무 선 문에 드문 그림자 반돌반돌하도다.

대응 원문

松門耿疎影.

19세기 반돌반돌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반돌반돌후-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 385

용례 02

66 문헌 용례

반돌반돌후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반돌반돌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반돌반돌하-

출처 1924 동아일보 1월 8일 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남대문으로 나가는 반돌반돌한 길은 소위 남부구역이라 하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8월 13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수박은 처음에는 털이 전면에 나지마는 익으면서 털이 없어지나니 윤택하고 반들반들하면 대개 잘 익은 것입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동아일보 1월 11일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하도 반들반들하고 히고 고흐니까 요것을 무엇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반들반들하다에 관한 주석

‘반들원돌ㅎ다’는 어근 ‘반들’이 중첩한 형태에 ‘-ㅎ-’가 결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후대에 ‘반들반들하다’가 나타나는 것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반들원돌ㅎ다’는 그에 앞서 ‘반들’이 중첩되면서 뒤의 ‘반’이 ‘한’으로 바뀐 *반들한돌ㅎ다’가 존재했고 15세기 중반 이후 ‘빙’이 반모음 [w]로 변한 형태인 ‘반들원돌ㅎ다’가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번들번들’에서도 비슷한 변화 양상이 보인다.

반들반들하다 관련 낱말

반들반들

반들반들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반들반들하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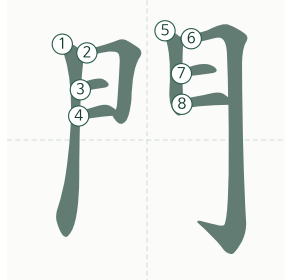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門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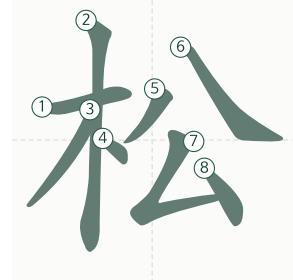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門/

松

뜻·음 소나무 송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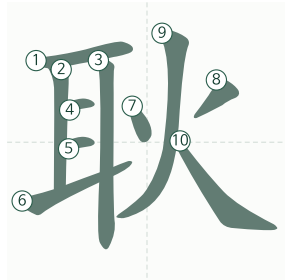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松/

耿

뜻·음 빛날 경

총 10획 · 부수 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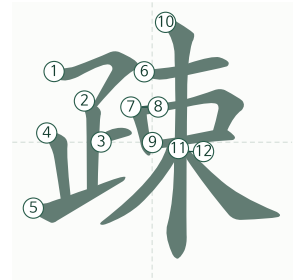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耿/

疎

뜻·음 성길 소

총 12획 · 부수 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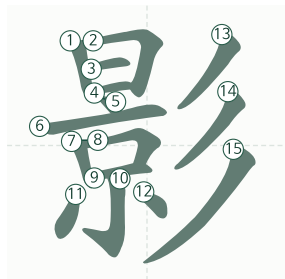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疎/

影

뜻·음 그림자 영

총 15획 · 부수 彡



hanja.wordrow.kr/한자/影/